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수호전

SHUI
HU
ZHUAN

서내암 라관중
박정일 오수자 역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수호전

1

시내암 라관중
박정일 오수자 역

북문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水浒传. 1: 朝鲜文 / (明)施耐庵, (明)罗贯中著;
朴正一, 吴水姊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69-3

I. 水… II. ①施…②罗…③朴…④吴… III. 章回小说—
中国—明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049195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1997年1月
第2版翻译出版

书 名/ 水浒传(1-4)
著 者/ (明)施耐庵 (明)罗贯中
译 者/ 朴正一 吴水姊
责任编辑/ 林承焕
责任校对/ 徐 燕 宋英爱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139.25
字 数/ 2270千字
版 次/ 2009年5月第1版
印 次/ 2009年5月第1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569-3(民文)
定 价/ 148.00元(共四册)

머 리 말

《수호전》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농민봉기를 제재로 창작하여 큰 성과를 이룩한 장편소설로서 중국과 세계의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는 작품이다.

《수호전》의 저자에 관한 명나라사람들의 기재는 서로 다르다. 량영(郎瑛)은 《칠수류고(七修类稿)》에서 《삼국(三国)》, 《송강(宋江)》이 두 책은 항주사람 라관중이 편찬한것인데 이전의 원본을 다시 편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송강》은 전당강사람 시내암이 창작한것이라고 했다.

고유(高儒)는 《백천서지(百川书志)》에서 《충의수호전(忠义水浒传)》 100회는 전당강사람 시내암이 창작한것이고 라관중이 후에 개편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리지(李贄)는 《충의수호전서(忠义水浒传叙)》에서 시내암과 라관중이 《수호전》의 저자라고 했다.

또한 전여성(田汝成)의 《서호유람지여(西湖游览志餘)》와 왕기(王圻)의 《비사회편(稗史江编)》에서는 라관중이 바로 《수호전》의 저자라고 했다. 그리고 호응린(胡应麟)은 《소실산방필총(少室山房笔丛)》에서 《수호전》은 무림 시모(施某)가 지은것이고 세상에서 시내암이라 전한다고 했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명나라사람들은 《수호전》의 저자를 대략 세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내암이라고도 하고 라관중이라고도 하며 또는 시내암과 라관중이라고 한다. 오늘날 학술계에서는 대부분 《수호전》의 저자를 시내암이라고 한다.

시내암의 프로필은 상세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원나라 말기, 명나라 초기의 전당강사람으로 보고있다.

《신문보》는 1928년 11월 8일에 호서정(胡瑞亭)의 《시내암 세적고(施耐庵世籍考)》라는 글을 실었는데 강소북부 대풍 백구진 시씨가 문중 15대가 시내암인데 바로 《수호전》의 저자라고 했다. 그후 홍화, 대풍일대에서 또 《시씨장문보(施氏长门谱)》 등 문물자료들을 발견했

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상술한 자료의 진위에 대하여 의심하고있다. 그러므로 진일보 연구되어야 한다.

《수호전》의 판본은 번체본과 간체본으로 나뉜다. 번체본은 문번사 간체본이며 간체본은 문간사 번체본이다. 간체본은 대부분 소홀하고도 졸렬하기에 유행된것은 대부분 번체본이다. 번체본은 주로 100회인바 제목은 《충의수호전》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저명한것들로는 곽훈(郭勛)의 각본(刻本), 《백천서지(百川書志)》 저록본(著錄本), 천도외신서본(天都外臣序本), 리탁오(李卓吾) 평본 등이 있다.

그리고 120회본이 있는데 거의가 제목을 《충의수호전전(忠義水滸全傳)》이라 하고 양정의 서언으로 되어있다. 100회본과 120회본은 75회 후에 관련되는 해당 조서, 표문, 문고중에 표기한 년월이 비슷하다.

레하면 송강이 료나라를 격파한 후 두가지 판본에 모두 “선화 4년 겨울”이라는 조서(제89회)가 있고 송강이 방랍을 격파한 뒤 조정에 보낸 표문에도 “선화 5년 9월”(100회본 제99회, 120회본 제119회)이라고 써여있다. 그런데 120회본 《전호를 정벌하다》, 《왕경을 정벌하다》에서는 20회(제91회부터 110회)나 되는 이야기에 전혀 그런 활동시간이 없으니 모순이 드러난다.

명나라 만력(萬曆)시기에 출판된 《신간정본전상삽증 전호, 왕경, 충의 수호전(新刊京本全像插增田虎王慶忠義水滸傳)》이란 책에는 “삽증(插增)”이라고 명확히 표시하였는바 후세사람이 보충하여 써서 억지로 삽입한것으로 보아야겠다.

또 연구계에서는 일찍 70회본은 청나라사람 김성탄에 의하여 마음대로 삭제하고 수개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그가 선양한 “고본(古本)”은 전혀 없었던것이다. 때문에 오직 100회본이야말로 《수호전》이야기를 이룰수 있었던 최초의 책이라 하겠고 또한 전설이야기의 원모습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수호전》의 제재는 북송 말년 송강이 봉기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송나라 왕칭(王偁)은 《동도사략 휘종기(東都事略·徽宗紀)》에서 “선화 3년 2월에 방랍이 초주를 함락하고 회남의 도적 송강이 회양군을 격파하고 또 경동, 하북 초나라 해주로 침입하였다. 여름 4월 경연날에 동관은 장군 신흥종과 더불어 방랍과 청계에서 싸워 그를 불

잡고 5월 병신날 송강을 사로잡았다.”고 적고있다.

또 《장숙야전》에서는 “장숙야는... 휘계각 대제로 해주로 진격하였다. 도적 송강은 군에서 심하게 로략질하면서 신속히 해안에 이르러 큰 전선 10여척을 빼앗았다. 장숙야는 천여명의 군사를 모아 십여리에 기치를 올리고 유인전을 벌리었다. 그리고 장사들은 물가에 숨어있다가 약속대로 일제히 내달아 송강의 배에 불을 질렀다. 배가 불에 휩싸이자 도적들은 크게 놀라 투지를 잃었는데 북병이 일제히 달려드니 송강은 하는수 없이 투항하였다.”고 했다.

이밖에도 많은 문헌들이 있는바 《3조북맹회편(三朝北盟會編)》, 《황송십조강요(皇宋十朝綱要)》, 리약수의 시 《포도우성(捕盜偶成)》, 범규의 《송고무공대부하동제2장절공묘지명(宋故武功大夫河東第二將折公墓志銘)》과 원나라때에 수개되어 씌여진 《송사》 등에서도 봉기군의 성세와 활동지구, 초무를 받거나 진압당하고 방랍을 정벌한 사건을 상세히 또는 간략하여 서로 다르게 기재하였다. 하여 우선 《수호전》의 편찬에 역사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송강이 봉기를 일으킨 이야기는 일정하게 전기성을 갖고있는데다 당시의 특정된 환경으로 하여 수호이야기는 민간에 쉽게 류전되어 골목이야기의 내용으로 되었는데 자연히 문예령역에 포함되었다. 송나라 라화(羅華)의 《취옹담록(醉翁談錄)》에는 송나라의 설화 《청면수 양지》, 《화화상 로지심》, 《행자 무송》 등 설화가 기재되어있다.

남송사람 공개(龔開)는 《송강36인찬》의 서언에서 완정하게 36명의 이름과 별명을 기재하였으며 수호사건이후의 일부 정절을 교대하면서 송강이 마음속에 충의를 간직하고 황제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왕으로 칭하지 않고 호보의라 하였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양배양하여 금기를 범할게 아닌가?”라고 송강을 찬양하였고 그로부터 《수호전》속의 송강의 성격과 전반 소설의 종자를 결정하였다.

원나라때 이름없는 한 작가가 편찬한 《대송선화유사(大宋宣和遺事)》에는 수호이야기속의 한단락 묘사가 있는데 주로 세가지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즉 양지가 칼을 팔고 조개 등이 생신강을 빼앗고 송강이 염파석을 죽이는 장면인바 그것은 수호이야기의 전파에 일정한 작용을 가져왔다. 특히 그중 송강이 초무를 받고 방랍을 정벌하는 두 개의 큰 정절이야말로 《수호전》의 기본결구를 닦아놓은것이다.

원나라 잡극속에는 수호극이 있는데 레하면 강진(康进)의 《리규가 형벌을 받다(李逵负荆)》, 고문수(高文秀)의 《쌍헌공(双献功)》, 리문울(李文蔚)의 《연청이 물고기와 겨루다(燕青博鱼)》, 무명씨의 《환노말(还牢末)》, 《삼호하산(三虎下山)》, 《황화峪(黄花峪)》 등이다.

이런 수호극은 수호이야기가 류전되면서 양지, 무송, 로지심 외에도 우선 묘사대상을 확대시켰다. 《대종선화유사》에서 묘사한 송강, 조개 외에 또 리규, 화영, 리웅, 로준의, 왕왜호, 연청 등을 중심인물로 썼다. 두번째로는 인물의 성명과 별호는 후날의 《수호전》과 비슷하다. 세번째로는 이전의 일부 설법과 묘사를 온정시켰는바 레를 들면 “36명의 큰 두령과 72명의 작은 두령들을 모으다”, “산채의 이름은 수호이고 호수의 호는 량산이라”, “조개가 화살을 맞고 죽다” 등 묘사는 《수호전》의 창작에 모두 추동작용을 하였다.

《수호전》의 내용은 아주 모순되고 복잡한바 그것의 결구는 두개 큰 단락으로 나뉜다. 전 70회를 제1단락으로 보는바 이 단락에서는 주로 두 방면의 내용을 서술했다. 즉 통치계급의 부패하고 잔혹함을 힐책하고 봉기영웅들의 반항행동 등을 노래하였다.

책에서 먼저 등장한 고구는 본래 부랑파락호의 자제로서 오직 공을 잘 차서 혼군(昏君)의 추대를 받아 전사부 태위직에 올랐다. 왕진모자가 밤중에 도주하고 림충부부가 사별하며 재능이 있는 양지가 거리바닥을 헤매게 된것은 다 고구의 박해를 받아서였다. 이와 같은 서두는 확실히 김성탄이 평가한것처럼 “혼란은 우에서 조성한것이다.”라고 해야 할것이다.

고구는 자기의 주위에 봉건적인 관계망을 펼쳐였는바 고아내는 그의 양자이고 고당주 지부 고렴은 그의 사촌동생이고 채경과 동관은 그와 같은 당파이며 강주지부 채득장은 채경의 아들이고 북경류수사 량세걸은 채경의 사위이고 화주 하태수는 채경의 문하생이다. 그들의 아래에는 탐관오리, 토호악패가 득실거리는바 아래우가 결탁하여 충신을 해치고 선량한자를 억압하며 백성들을 잔혹하게 압박하여 계급지간의 첨예한 모순을 보여주었다.

압박이 있으면 반항이 있는 법이다. 저자는 대량의 편폭을 할애하여 정면적으로 반항영웅들을 묘사하고 노래하였다. 처음엔 개인적인 반항, 레하면 로달, 림충 등 인물들의 반항으로부터 잇달아 집체

적인 반향, 레하면 생신강을 탈취하고 강주에서 형장을 치는 사건 등을 서술하였다. 지주무장을 공격하던데로부터 조정의 대군을 공격하는바 레하면 세번이나 추가장을 공격하고 련환마를 대패시키는것 등이다.

량산박에서는 드디어 병사를 모으고 말을 사들이며 량식을 저장하고 배를 만들며 정권을 세우고 이른바 “팔방이 한지역이 되고” 무슨 출신이든 “너나없이 형님, 동생으로 대접하고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정치주장을 제기하였으며 봉건사회의 계급착취와 정치적인 압박을 반대하였는바 그것은 광범한 피압박인민의 념원을 반영하였다.

제71회후에는 초무를 받고 료나라를 정벌하며 방랍을 정벌하는 장면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또 하나의 큰 단락이다. 전반부에는 인민들이 관부를 반대하는 장면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계급모순을 반영한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충신들이 간신을 반대하는 장면을 서술하였는데 이는 통치계급내부모순을 반영한것이다.

송강이 초무를 받은 뒤 수호의 영웅들은 시종 간신들의 배척과 타격, 모함을 받아 나중에는 송강 등이 간신들에 의하여 죽게 된다. 이러한 비극은 통치자와 피통치자, 충신과 간신간의 모순을 조화하기는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농민봉기의 일반적인 귀속을 제시하였고 농민계급의 국한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실 저자의 깊은 감회와 력사에 대한 심각한 사색을 거친 결과인것이다.

총적으로 《수호전》의 저자는 높은 예술적표현력과 생동하고도 풍부한 문학적인언어로 수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서술하였으며 사랑스럽고 개성이 선명한 영웅인물형상을 수많은 형상화하였다. 그리하여 후세의 농민봉기군으로 하여금 고무받게 하였고 문학예술작품이 풍부한 제재와 예술적인 계시를 받게 하였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나라의 대백과사전서는 《수호전》을 높이 평가하였다.

레하면 《대영백과전서》는 “원말명초의 소설 《수호》는 통속적인 구두어형식으로 력사결작의 행렬에 나타났고 따라서 보편적인 갈채를 받게 되었으며 가장 의의를 띤 한부의 문학작품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수호전》은 세계에서 널리 류전되어 일부 나라의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국외의 여러 큰 도서관에서는 《수호전》의 중요한 판본을 소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수호전》을 번역하였는바 라틴문, 영문, 프랑스문, 독일문, 이탈리아문, 로씨야문, 헝그리아문, 체스꼬벤스꼬문, 핀란드문, 조선문, 베트남문, 타이문, 일본문 등이다. 각국 문자로 된 연구론저는 날이 갈수록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인민문학출판사는 용여당본을 기본으로 하고 천도외신서본과 양정견이 서문을 쓴 책 등을 참조하여 이 책을 정리 출판한다. 첫 출판은 1975년에 하고 1981년에 수정하여 재판하였는데 사회와 학술계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번에 출판하면서 다시 새로 교정을 보았으며 주해를 달아줌으로써 정리사업이 더 완성화되었는바 이른바 정수를 취한것이다. 교열, 주해 등이 완수되고 편집부의 위탁을 받아 기꺼이 머리글을 작성하여 책머리에 첨부한다.

주일현(朱一玄)

1994년 10월, 천진시 남개대학에서

(림승환 역)

차 례

- 제 1 회 장천사는 제를 지내여 은역을 물리치고
홍태위는 잘못하여 마귀를 풀어놓다 /1
- 제 2 회 왕교두는 살며시 연안부로 도주하고
구문룡은 사가촌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다 /21
- 제 3 회 사대랑은 야밤에 화음현을 떠나고
로제할은 주먹으로 진관서를 쳐죽이다 /54
- 제 4 회 조원외는 문수원을 다시 수리하고
로지심은 오대산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다 /73
- 제 5 회 소패왕은 취한채 비단휘장안으로 들어가고
화화상은 도화촌을 크게 소란시키다 /100
- 제 6 회 구문룡은 적송림에서 행인을 털고
로지심은 와관사를 불사르다 /119
- 제 7 회 화화상은 수양버들을 뿌리채 뽑고
표자두는 백호당에 잘못 들어가다 /135
- 제 8 회 립교두는 창주로 정배를 가고
로지심은 야저림에서 소동을 일으키다 /154
- 제 9 회 채진은 천하의 호걸들을 불러들이고
림충은 몽둥이로 홍교두를 때려눕히다 /168
- 제 10 회 립교두는 산신당에서 눈보라를 피하고
륙우후는 마초장에 불을 지르다 /188
- 제 11 회 주귀는 수정에서 효시를 쓰고
림충은 눈오는 밤에 량산으로 가다 /204
- 제 12 회 립충은 량산박에서 록림객이 되고
양지는 변경성에서 보검을 팔다 /221

- 제 13 회 급선봉은 동곽에서 공을 다투고
청면수는 북경에서 무예를 겨루다 /235
- 제 14 회 적발귀는 취하여 령관묘에 누웠고
조천왕은 동계촌에서 의인을 알아보다 /251
- 제 15 회 오학구는 원씨 삼형제를 가담시키고
공손승은 7성중에 들어 의를 취하다 /266
- 제 16 회 양지는 금은보화를 호송하고
오용은 지혜로 생일례물을 빼앗다 /286
- 제 17 회 화화상은 혼자서 이룡산을 치고
청면수네는 둘이서 보주사를 빼앗다 /307
- 제 18 회 미염공은 지혜로 삼시호를 속이고
송공명은 슬며시 조천왕을 도망치게 하다 /327
- 제 19 회 립충은 수채에서 크게 싸우고
조개는 량산박을 쉽게 빼앗다 /346
- 제 20 회 량산박의 의사들은 조개를 추대하고
류당은 달밤에 운성현을 찾아가다 /367
- 제 21 회 교활한 로파는 취하여 당우아를 때리고
송강은 노하여 염파석을 죽이다 /387
- 제 22 회 염로파는 운성현청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주동은 의리로써 송공명을 놓아준다 /407
- 제 23 회 채진은 횡해군에서 손님을 만류해두고
무송은 경양강에서 범을 때려잡다 /423
- 제 24 회 왕로파는 돈을 탐내여 두쟁이질을 하고
운가는 분이 치밀어 차집에서 야단치다 /441
- 제 25 회 왕로파는 서문경에게 계책을 일러주고
음탕한 너인은 무대랑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다 /481
- 제 26 회 하구숙은 화장터에서 유골을 훔쳐내고
무이랑은 수급으로 제를 지내다 /497

- 제 27 회** 모야차는 맹주도에서 사람고기를 팔고
무도두는 십자파에서 장청을 만나게 되다 /520
- 제 28 회** 무송은 완력으로 안평채를 위압하고
시은은 의리로써 쾌활림을 빼앗다 /533
- 제 29 회** 시은은 맹주도를 다시 차지하고
무송은 취해서 장문신을 때리다 /546
- 제 30 회** 시은은 사형수옥에 세번 드나들고
무송은 비운포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다 /558



제 1 회

장천사는 제를 지내여 온역을 물리치고
 퉁태위는 잘못하여 마귀를 풀어놓다

시에 이르기를

수많은 책들의 갈피갈피엔
 뛰어난 선비들 많고 많아
 하찮은 명리따위 아랑곳않고
 얼음을 가르듯 눈을 배듯
 담소속에 오구(吳鉤)를 구경하네
 선왕, 후제 일일이 평가하면서
 진짜와 가짜도 판별하고
 7국이 중원을 차지하였던
 요요(擾擾)한 춘추지란 이야기하네
 흥망은 취약한 버들 같고
 신세는 사공없는 빈 배 같구나
 공명 이론자 세일수 없고
 공명 다툼자 세일수 없는데
 공명 피한자 더구나 많았네
 삼시에 초생달이 긴 강을 비추어
 강호는 뽕나무밭의 옛길 됐어라
 나무에서 물고기 잡는것을 나무라거나
 궁한 원숭이 나무 골라 앉음을 의심하거나

활에 놀라 굽은 나무 피함을 탓하기보다
아예 손에 든 잔 기울이며
새 노래 듣는게 더 나으리.

또 시에 이르기를

란리가 분분하던 5대의 천하는
삼시에 구름 개여 하늘이 보이네
초목은 백년만에 비이슬의 혜택받고
만리 옛강산 새로이 통일되었네
수수한 골목에도 뽕라비단 늘어있고
여기저기 루대에서 풍악소리 진동하네
태평스런 세월에 사람들 즐기고
꽃도 피꼬리도 한가로이 늦잠 자네.

본래 이 시는 오래전 송나라 신종(神宗)천자때에 성은 소이고 이름은 요부고 도호는 강절선생이라 하는 유명한 선비가 지은것이였다.

이 시는 5대 당조말기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란을 한탄한것인데 그때는 아침에 량나라이던것이 저녁에는 진나라로 변하는 판이어서 말 그대로 “주(朱), 리(李), 석(石), 류(劉), 곽(郭)으로 사람이 갈리고 량(梁), 당(唐), 진(晉), 한(漢), 주(周)로 나라가 바뀌어 임금은 갈리기 열다섯, 전란은 계속되기 50년”이였다.

그뒤 다행히 천운이 되돌아와 마침내 갑마영에서 태조 무덕(武德)황제가 탄생하였다. 이 성인이 탄생할 때 하늘에는 붉은빛이 가득 차고 기이한 향기가 밤새껏 풍기였다. 그러니 하늘의 벽력대선이 인간에 내려온것이다.

무덕황제는 력대의 어느 제왕도 따를수없이 영결하고 용맹하고 지략이 넓어서 한길쫓 되는 몽둥이로 4백주의 군사를 격파하고 조씨(趙氏)의 천하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 천자는 세상을 맡꿈히 가시고 중원을 평정한후 국호를 대송(大宋)이라 하고 변량(汴梁)을 서울로 정하였다. 그는 아홉대, 여덟 임금중의 첫째로서 400년 왕업의 기호를 닦은 임금이다. 그렇기때문에 소요부선생이 “줄지에 구름이 개여 하

늘이 보이도다.”라고 찬양한것은 백성들이 맑은 하늘을 다시 본것처럼 기뻐하였다는 뜻이다.

그때 서악 화산에 진단(陳抃)이라는 처사가 있었는데 그는 도를 많이 닦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일을 환히 내다보고있었다. 하루는 그가 나귀를 타고 산을 내려 화음(華陰)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니 길가에서 나그네들이 지껄인다.

“지금 동경에는 채세종(蔡世宗)이 조검점(趙檢點)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서 조검점이 즉위하였다네.”

그 말을 듣자 진단선생이 하도 기뻐서 이마에 손을 얹고 간간대소하다가 그만 나귀등에서 굴러떨어졌다. 나그네들이 그 연고를 물으니 진단선생이 대답하였다.

“이제부터는 천하가 안정될거네!”

우로는 천의에 부합되고 아래로는 지리에 부합되고 중으로는 인심에 부합되기때문에 그렇다는것이다. 태조가 경신년에 선위를 물려받고 즉위하여 황위에 있는 17년 동안에 천하는 태평하였다. 그는 아우인 태종에게 황위를 전하였다. 태종황제는 즉위한지 22년만에 진종황제에게 황위를 전했고 진종은 또 인종에게 황위를 물려주었다.

이 인종황제는 원래 하늘에 있는 적각대선이었는데 인간세상에 태어나자 밤낮 울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조정에서는 각처에 황방(黃榜)을 내붙이고 널리 명의를 불러들여 고치려 하였다. 그러던차에 하늘이 감동하여 태백금성을 세상에 내려보냈다. 그는 로인으로 변신하여 황방을 떼여내리면서 자기가 능히 태자의 울음을 그치게 할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황방을 지키던 관원이 곧 그를 데리고 췌내로 들어가서 진종황제에게 뵈인즉 천자는 그더러 내전에 들어가 태자를 보게 하라는 성지를 내렸다.

그 로인이 곧추 내전으로 들어가서 태자를 안고 태자의 귀가에 대고 나직한 소리로 글을 외우니 과연 태자는 울음을 뚝 그치었다. 그러자 그 로인은 성명도 남기지 않고 홀연 맑은 바람으로 변하여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로인이 태자의 귀가에 대고 외운 글은 대체 어떤것인가? 그 글인즉 “문(文)에는 문곡(文曲)이 있고 무(武)에는 무곡(武曲)이 있도다.”라는것이였다. 그것은 즉 옥황상제가 자미궁에 있는 별 둘을 내려보내여 천자를 보좌하리라는 뜻이다. 문곡성이란 곧

남아 개봉부윤 룡도각 대학사 포승(包拯)이고 무곡성은 바로 서하국을 정복한 대원수 적청(狄靑)이다.

이 두 어진 신하가 나타나 황제를 보좌하여 4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동안에 년호를 아홉번이나 고쳤다. 천성 원년 즉 계해년에 즉위한후 천성 9년에 이르기까지 천하가 태평하고 오곡이 풍등하여 만백성이 다 자기의 생계를 즐기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좇지 않고 밤에도 문을 거는 일이 없이 살았다. 그래서 이 9년을 1등이라 하였다. 명도 원년부터 황우 3년까지의 9년간도 역시 해마다 오곡이 풍성하였으므로 이를 2등이라 하였다. 황우 4년부터 가우 2년까지의 9년간도 대풍이 들었으므로 이를 3등이라 하였다. 삼구는 이 십칠해서 이 27년간을 “3등지세(三登之世)”라 하였다.

그때는 백성들이 아주 즐겁게 살았건만 기쁨끝에 슬픔이 울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가우 3년 봄에 온역이 천하를 휩쓸어서 강남으로부터 량경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백성들이 앓지 않는 곳이라곤 없었으므로 나라의 여러 주와 부들에서 올라오는 장계가 내리는 눈발 같았다. 동경성만 하더라도 성안팎에 있는 군사와 백성들이 태반이나 죽어나갔다.

개봉부윤 포대제는 해민화제의 약방문에 좇아 자기의 봉급까지 내여 약을 지어 백성들을 치료하였으나 아무런 효험도 얻지 못하고 온역은 날로 심해갈뿐이었다. 이때 문무백관들이 의논한 끝에 대루원에 모여서 조회때를 기다려 천자에게 아뢰기로 하였다. 아뢴 말인즉 기도로써 온역을 물리치자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없었던들 36명 천강(天罡)이 하계에 내려오고 72좌 지살(地煞)이 인간에 나타나 송조의 천하를 진동시키고 조씨의 사지를 들볶지는 않았을것이다. 여기에 이런 시가 있다.

만물이 번창한 속에 백성들 즐거이 살고
삼등지세에 즐거움 끝없네
례악으로 다스려 풍악소리 높던 땅에
전란이 일어나 창과 칼 번뜩이다니
수호채엔 협객들 둔을 치고
량산박엔 영웅호걸 모여드네

치란과 흥망을 곰곰히 따져보면
그것은 모두다 음양의 조화라네.

대송 인종천자(仁宗天子)가 황위에 있던 가우(嘉祐) 3년 3월 3일 5경 3점¹⁾에 천자는 자신전(紫宸殿)에 나와 문무백관의 조하를 받았다. 그 광경을 보면 이러했다.

상운은 봉각에 자욱하고 서기는 통각에 어렸는데
안개 어린 버들은 정기(旌旗)를 휘둘러하고
이슬 맺힌 꽃들은 검극을 마중하네
천향축 불빛아래 옥잠 꽃고
붉은신 신은이들 지대들에 모여들고
선악(仙樂)소리 울리는 속에
비단옷 차린이들 어가를 모시네
진주발 걷히니 황금전에 금란여 나타나고
봉우선(凤羽扇) 펼쳐드니 백옥섬돌앞에 보련이 멎는구나
정편(净鞭)이 은은히 세번 울릴제
일제히 문무백관 갈라서더라.

이때 전두관(殿头官)이 소리높이 웨쳤다.

“상주할것이 있는 사람은 속히 나와 상주하도록 하고 상주할것이 없으면 발을 걷고 조하를 물리도록 하겠나이다.”

그러자 반렬중에서 재상 조철(趙哲)과 참정 문언박(文彦博)이 나와서 아뢰었다.

“지금 경사에는 온역(瘟疫)²⁾이 크게 번져 군민들중에 죽는 사람이 많나이다. 폐하께서는 성은을 베푸시여 죄인을 석방하시고 제반 형벌을 감면하시며 부세를 경감하시고 천재를 물리치는 제를 지내시여 만백성을 구원하소서.”

천자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한림원(翰林院)에 칙령을 내려 조서를 짓게 했다. 천하 죄수들을 감동석방하며 민간부세를 모조리 면제시키

1) 5경 3점: 오후 4시.

2) 온역: 봄철에 유행하는 전염병.